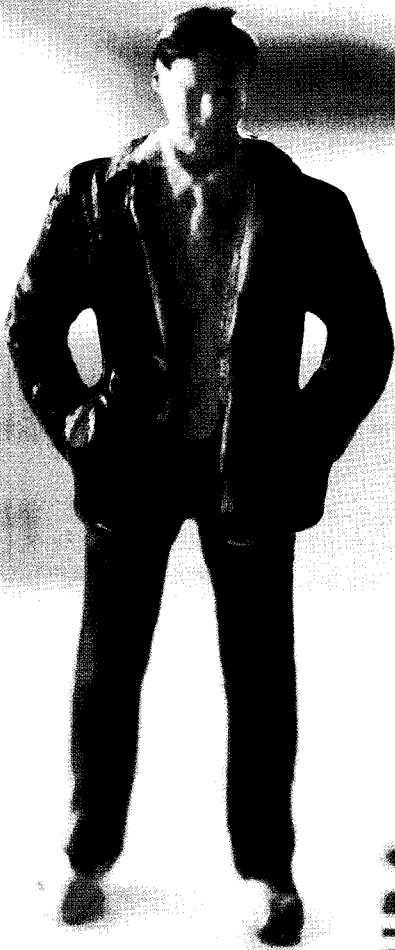


벤처투자시장 원기 회복에 정부가 나섰다

중기청, 모태펀드 출자에 1,600억 투입 ... 상반기 3,000억 벤처펀드 결성 지원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 이하 중기청)이 최근 힘 빠진 벤처투자시장의 활력 회복을 위해 특약 처방전을 내놓았다. 올해 모태펀드 출자사업에 1,6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70% 이상을 상반기에 집중 출자할 방침이다. 중기청의 벤처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소개한다.

글_ 편집실



2010
EURO
EURO

모태펀드란

모태펀드(Fund of Funds)는 기업에 직접 투자하기 보다는 개별펀드(투자조합)에 출자해 직접적인 투자위험을 줄이면서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펀드다. 전체 출자자금을 하나의 펀드(모펀드)로 결성하고, 모펀드를 통해 펀드운용사가 결성하는 투자조합(子펀드)에 출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벤처투자시장에 한파 불어

지난 해 11월말 기준으로 벤처투자를 위한 펀드결성은 전년도에 비해 38.2% 이상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벤처투자도 28.8% 이상 감소한 바 있다. 신규 투자의 경우 2006년 1조 231억 원에서 2007년 1조 2,041억 원, 2008년 7,924억 원으로 줄었으며, 펀드 결성도 2006년 9,531억 원에서 2007년 1조 1,954억 원, 2008년 6,164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축소됐다. 미국발 금융 위기는 한국의 벤처투자시장에도 한파를 몰고 왔으며, 벤처펀드의 주요 물주 역할을 하던 연기금 및 금융기관이 벤처펀드 출자를 중단한 것이 펀드결성 감소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 기관의 벤처 출자는 2005년 2,571억 원에서 2006년 2,528억 원, 2007년 4,047억 원, 2008년 10월 현재 1,697억 원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 처방전

중기청은 공공 얼어붙은 벤처투자시장에 혼기를 불어넣기 위해 올해 모태펀드 출자사업에 1,6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70% 이상을 상반기에 집중 출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국벤처투자(주)(사장 김형기)는 1,100억 원 규모의 제 1차 출자사업을 공고했으며, 1~2월 중 지원대상 조합을 선정하고, 상반기 중 3,0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 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3,000억 원은 300개 중소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규모의 재원으로, 업체당 평균 벤처투자 규모는 10억 원에서 12억 원 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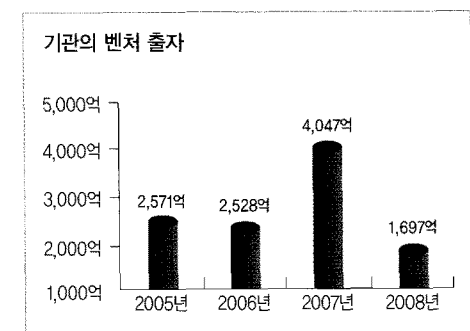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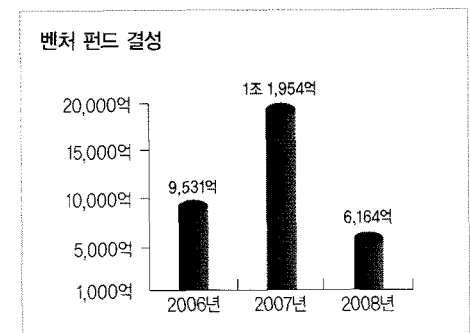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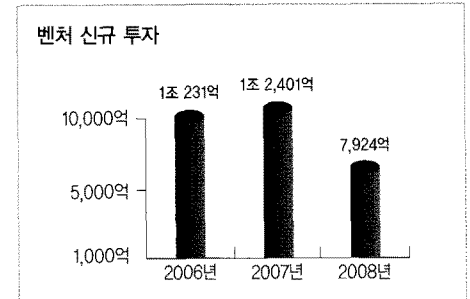
이와 함께 올해는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으면서 연기금 및 금융기관이 벤처펀드 출자를 재개하고, 정부의 모태펀드 사업이 조기 집행됨에 따라 벤처펀드 결성이 활발해지면 벤처투자도 회복될 것으로 중소기업청은 예상하고 있다.

벤처캐피탈 업계도 주식시장과 경기침체로 거품이 빠지면서 기업의 옥석이 가려지고, 유리한 조건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다고 보고 본격적인 투자확대를 위한 물밑작업이 한창이다. 외국 투자기관도 한국 벤처투자시장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국내 벤처캐피탈과 접촉을 시작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벤처캐피탈 업계에서는 2억 5,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사업방식과 내용도 바꾼다

중기청은 벤처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한 골물살을 탈 수 있도록 모태펀드 사업의 조기집행 이외에도 사업방식과 내용을 확 바꾼다.

첫째, 신성장 동력 및 녹색산업, 방위산업 분야 전문투자펀드를 지원대상에 포함시킨다. 이들 산업은 GDP 성장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 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



출을 위한 핵심분야로서, 이들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미래 먹거리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신재생 에너지 등 그린에너지 산업은 기존 화석에너지 산업에 비해 7~11배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둘째, 창업초기기업에 전문투자하는 벤처펀드에 대해 정부가 80%까지 출자를 지원한다.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는 성공 시 높은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으나, 투자기간(7년 이상)이 길고 실패 가능성도 높아 순수 민간 벤처캐피탈로서는 투자가 어려운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반면, 막대한 R&D 자금이 투입되어 개발한 특허기술을 상업화할 수 있는 통로이고, 고용창출 효과도 커서 정부로서는 집중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창업초기(3년 이하) 기업에 대한 투자비중은 2005년 26.1%에서 2006년 30.3%, 2007년 36.8%, 2008년에는 38.3%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셋째, 중소·벤처기업의 구조조정 및 M&A를 위한 펀드와 구주인수 펀드에 대한 출자비율도 기존 30%에서 50%로 높여 지원한다. 올해 투자시장에서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일시적 경영부진에 빠진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 M&A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벤처캐피탈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모태펀드를 통한 M&A 펀드 결성현황을 보면 지난해 11월 현재 11개 조합, 4,160억 원에 이른다. 그리고 기존 벤처펀드가 확보한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벤처캐피탈의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는 구주인수 펀드도 벤처투자시장의 숨통을 트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모태펀드를 통한 구주인수 펀드는 지난해 11월 말 현재 3개 조합, 1,590억 원으로 결성돼 있다.

넷째, 모태펀드 출자도 연중 수시 출자가 가능하도록 과감히 바꾼다. 그동안 모태펀드 사업은 연 3회로 제한되어 시장수요를 적기에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모태펀드 사업을 시행하는 한국벤처투자는 제 1차 사업공고에도 불구하고, 10억 원 미만의 출자요청에 대해 약식심의를 통해 언제든지 출자가 가능한 만큼 벤처캐피탈 업계가 이를 많이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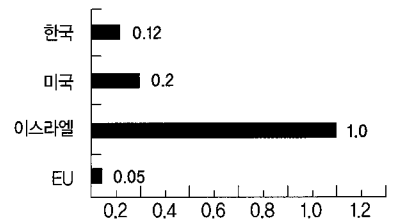
벤처투자 선진국 수준으로 늘린다

모태펀드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 정부가 출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이를 통해 민간의 벤처투자를 촉진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벤처투자는 성장잠재력이 큰 중소기업을 민간캐피탈이 엄선해 손실을 감수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점에서 용자와 보증지원과는 차별화된 지원 방식이다. 이러한 점에서 담보력이 없는 초기기업이나, 사업확장 단계에 신용한도 이상의 자금을 필요로 하는 유망기업은 유동성 대책으로 용자나 보증보다는 벤처투자 확대를 선호하고 있다.

정부는 벤처투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 아래 현재 8,000억 원 규모의 모태펀드 운용규모를 2012년까지 1조 6,000억 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각국의 GDP대비 벤처투자 비율(%) (2006년 기준)



벤처펀드 이익·손실 미리 예측한다

한국벤처투자, 투자성과지수 선보여

모태펀드 출자로 운용되는 벤처펀드의 예상 이익과 손실 수준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개발돼 벤처투자시장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태펀드 투자관리기관인 한국벤처투자는 지난 7일 한양대 경제연구소와 함께 벤처펀드 투자성과를 지수로 표현한 'KVIC 인덱스'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지수는 모태펀드가 자(子)펀드에 출자한 납입액 대비 자펀드로부터의 회수 예상액을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100' 이상이면 투자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벤처펀드는 성과에 대한 공시 의무가 없는 데다 투자대상이 대부분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가 어려웠다. 이 때문에 연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들은 벤처펀드 투자를 기피해왔다.

'KVIC 지수'는 앞으로 모태펀드의 자펀드 선정 및 사후관리에 활용되며 오는 5월 2008년 12월 기준으로 첫 지수 발표를 시작으로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발표된다.